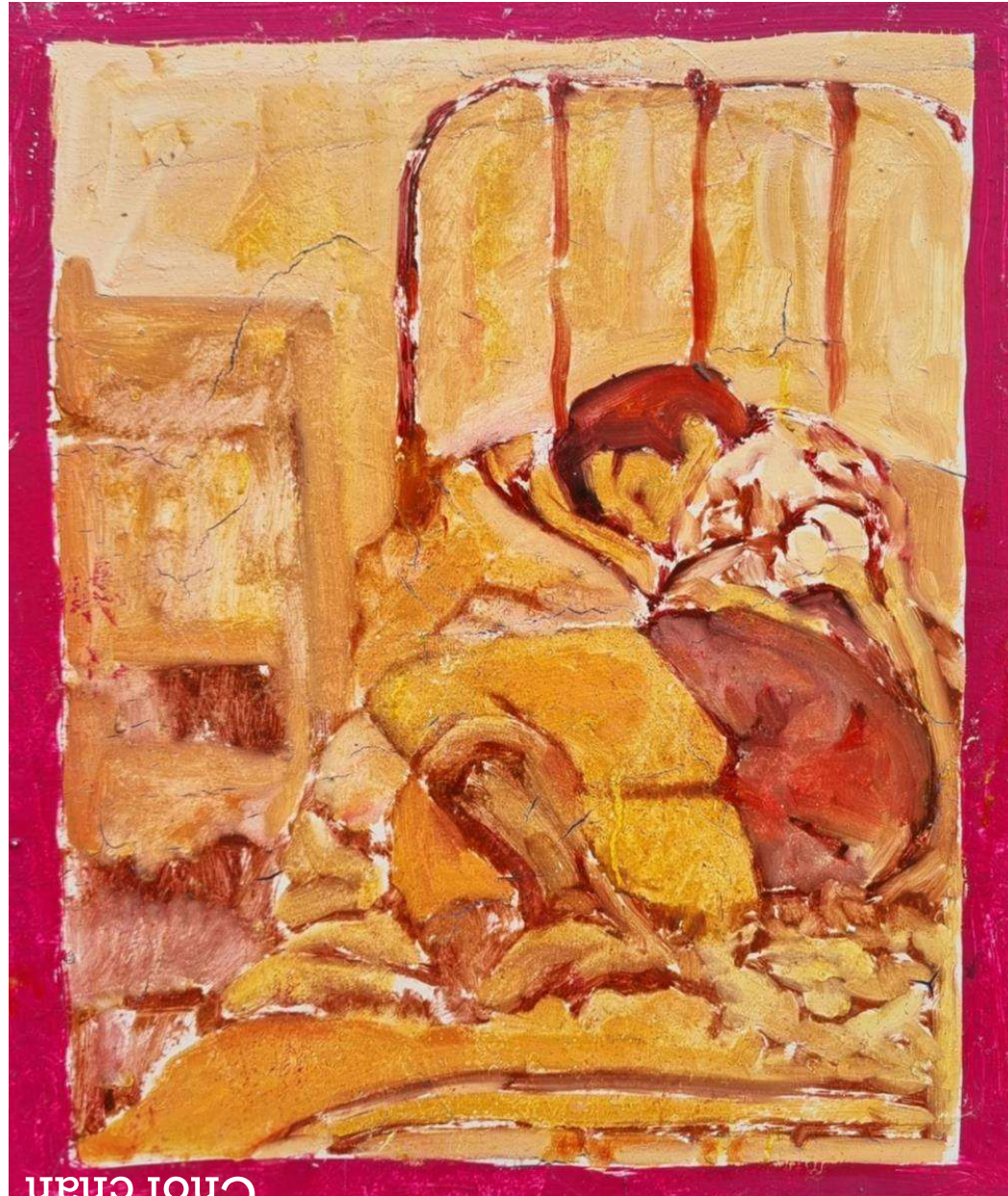


Choi chan

Contemporary art

2025



A sunday nap, oil on canvas, 2024

서사 쌓기

나는 나에게로 함축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서사를 그린다. 정돈되지 않은 필치와 직설적인 언어처럼, 감정의 순간을 가감 없이 화면에 옮긴다.

회화는 가장 솔직한 매체이기에, 지금의 나를 드러내는 일이 곧 작업의 본질이 된다. 자연과 일상은 위안이자 출발점이며, 그 안에서 '왜 그리는가'를 끊임없이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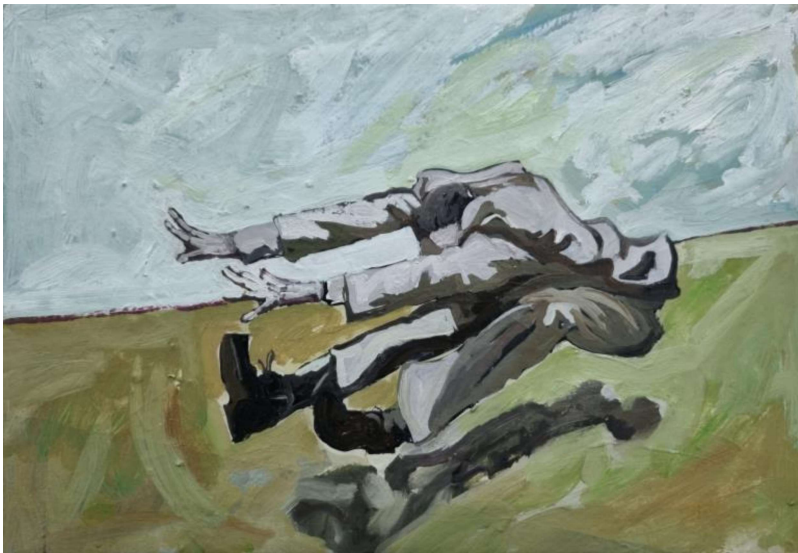
결국은 한 인간의 현재를 담아낸다.



미치겠네, oil on canvas, 130×162cm, 2025



So , oil on canvas, 116×81cm,
2025



답답하네, oil on canvas, 23.5 x 33cm, 2025
 미치겠네, oil on canvas, 33.5 x 26cm, 2025
 나를 아직 사랑할 수 있다, oil on canvas, 33 x 21cm, 2025
 한시름, oil on canvas, 23 x 15.5cm, 2025

성화(聖火)를 시작점으로

‘내 회화는 이제 위안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에 불을 전하고 그 책임을 탐구하는 행위로 확장한다.’

‘불꽃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며 우리의 기억을 데우고, 동시에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극히 개인적인 내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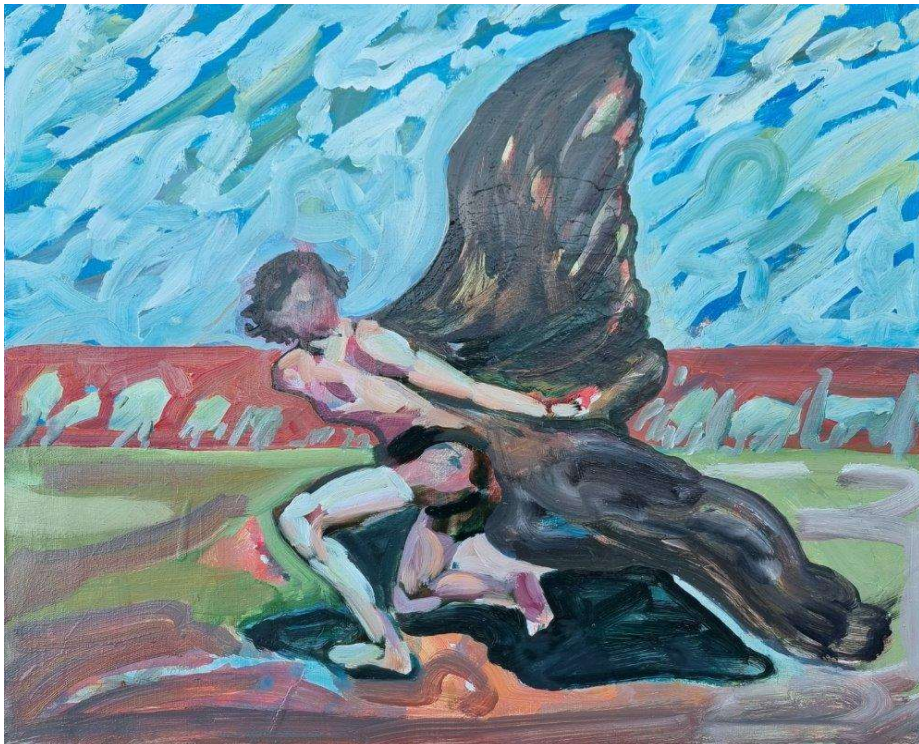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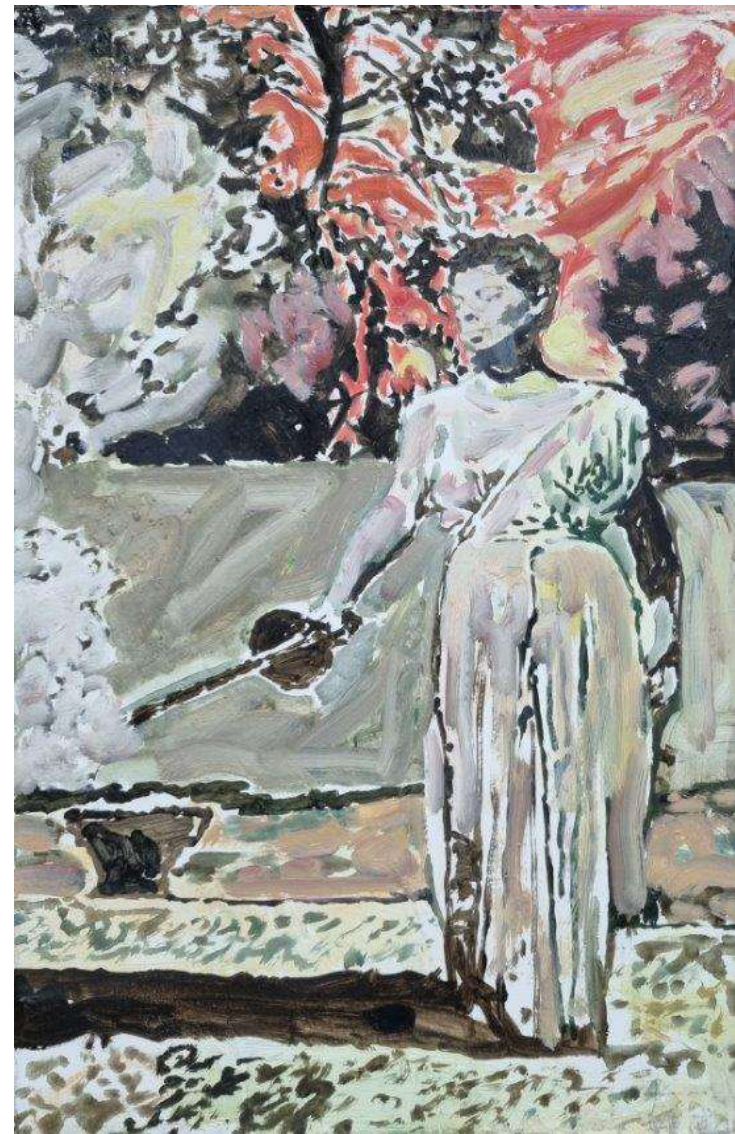
기존의 '자연으로 회귀해 위안을 찾는 서사와, 불을 통해 문명과 책임을 획득하는 신화적 서사가 합쳐져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 늘 충돌하고 회복하고 포용하는 성질을 가졌었는데, 성화처럼 시작하고 전수되고 연대까지 이어가고자 한다.

이것은 단일 그림 한 점의 변화가 아니라 작업 세계의 이동이다. 자연의 감각적 위안에서 출발해, 중심적 상징을 매개로 개인적 감정과 공동체적 의례, 문명적 숙의로 사고지를 넓히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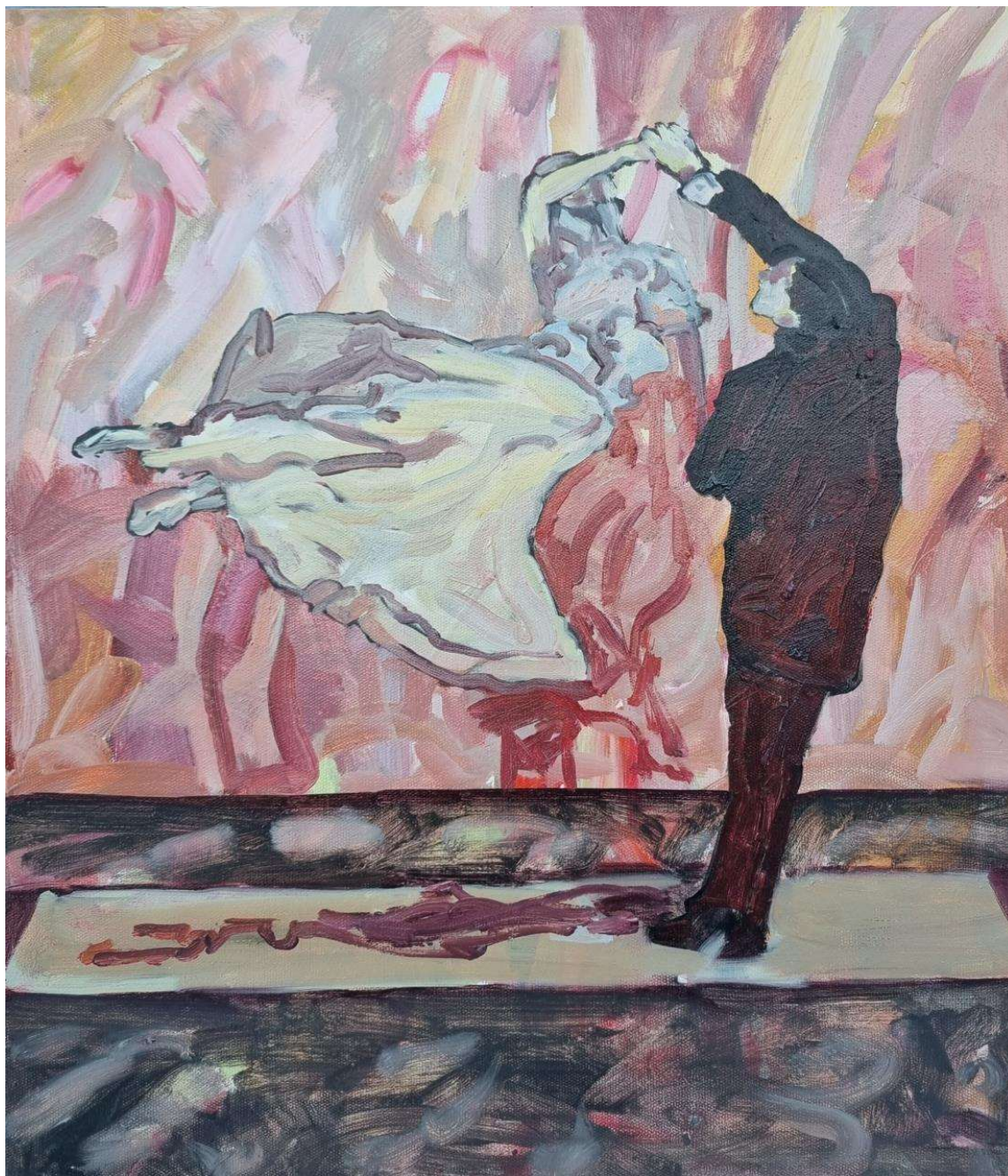
작업 이미지는 '의례적 불의 전달' 장면이다. 고대 복식의 두 인물, 한쪽이 손에 든 불을 타인에게 내미는 순간 간단한 행위에 기억·공동체·시작이라는 여러 층위가 켜켜이 쌓여 있다. 불은 시초·생명·문명의 선물 혹은 짐으로 위치가 옮겨간다. 불의 형상, 전달의 제스처, 배경의 고대적 돌과 숲의 잔상 모두 의례의 시간성을 말한다.



성화, oil on canvas, 51×73cm, 2025



가는 길이 바쁘다, oil on canvas, 53×65cm, 2025 위
 어디론가 갈거다, oil on canvas, 45×53cm, 2025 아래
 시작, oil on canvas, 61×38cm, 2025 오른쪽



태오는 아니지만, oil on canvas, 48×56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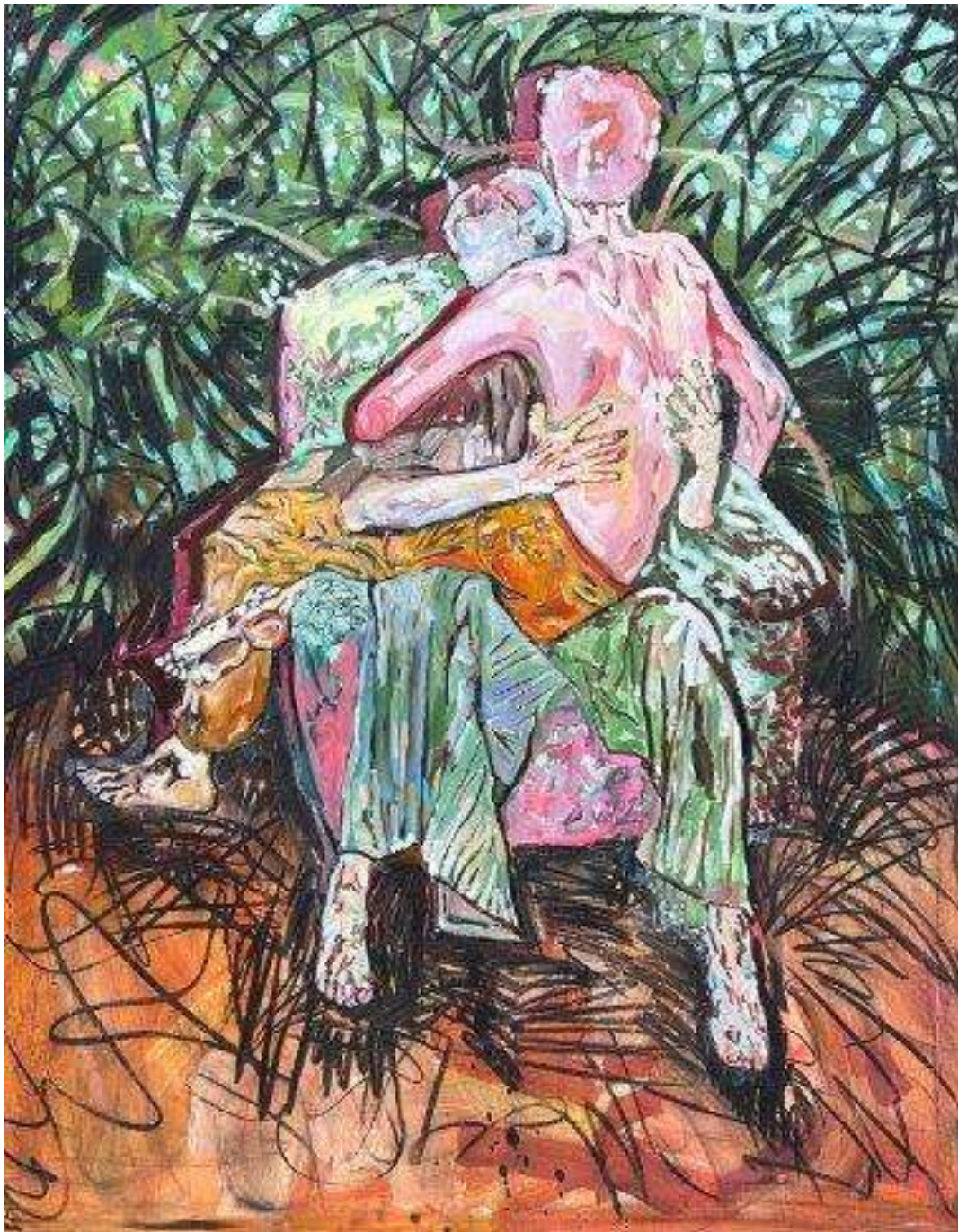


서석교, oil on canvas, 92×73cm,
2025

Working note

바쁘고 지치는 삶을 살아가다가 무의식중에서도 자연을 찾는다. 그저 자연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에서 비롯된다. 쉼과 그리움, 희망을 떠올리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한다.

문득, 내가 추구하는 것은 뭘까? 있다면 자연에 둘러싸여서 한껏 조용해진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생각한다.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힘듦과 일상을 잊고 평화로운 공간을 만끽한다. 내 작품은 자연의 방대함과 도시생활의 활기찬 에너지를 캔버스라는 한 화면에 담아낸다. 자연은 언제나 곁에 있다. 잠깐만 떠올려도 복잡한 감정들을 정제하고 진정시켜주고, 가장 남기고싶은 애뜻한 감정과 그리움만이 남는다. 나에게 자연은 그리운 존재이자 활력이다.



정서적포만감이 가득 차있을 시기에 순간들이
기억난다 안아지고 있는 손길과 허리에 온기가
전해지고 자연에서 오는 바람들은 살짝 서늘하
다. 살냄새와 바람을 타고 오는 풀냄새가 함께
말아진다.

작품에선 시각적으로 뭔가 되게 인조적인 연
출이라 보는이도 있다. 그렇지만 의지하는 사람
과 껴안고 얼굴을 파묻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건 누구라도 겪었을 것이다. 자연의 방대함과
내가 사랑하는 이와의 온기를 동시에 누린다는
건 과분하면서도 아쉽다. 내게 느끼게 해준 방
식들을 자주 캔버스로 남겼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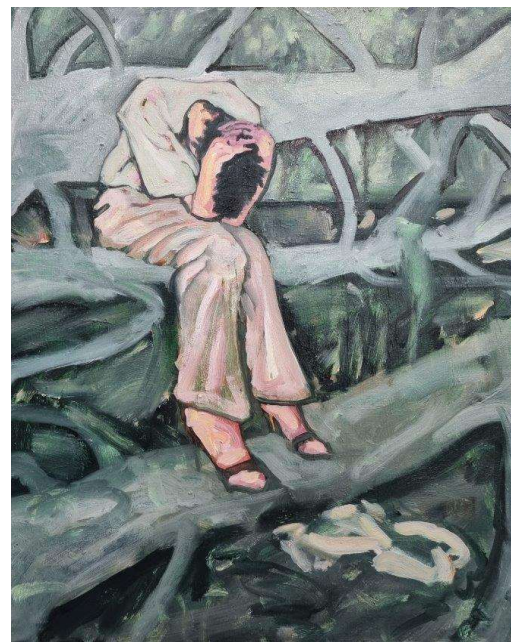
정서적 포근함, oil, charcoal on canvas, 162×130cm, 2025



힘들어 하길래 주고 싶었다, charcoal on canvas, 112×193cm, 2024



나를 아직 사랑 할 수 있다, oil on canvas, 200×90cm, 2024



나를 아직 사랑 할 수 있다, oil on canvas, 65×54cm, 2025



물에서 건져내었다, oil, chacoal on canvas, 90×116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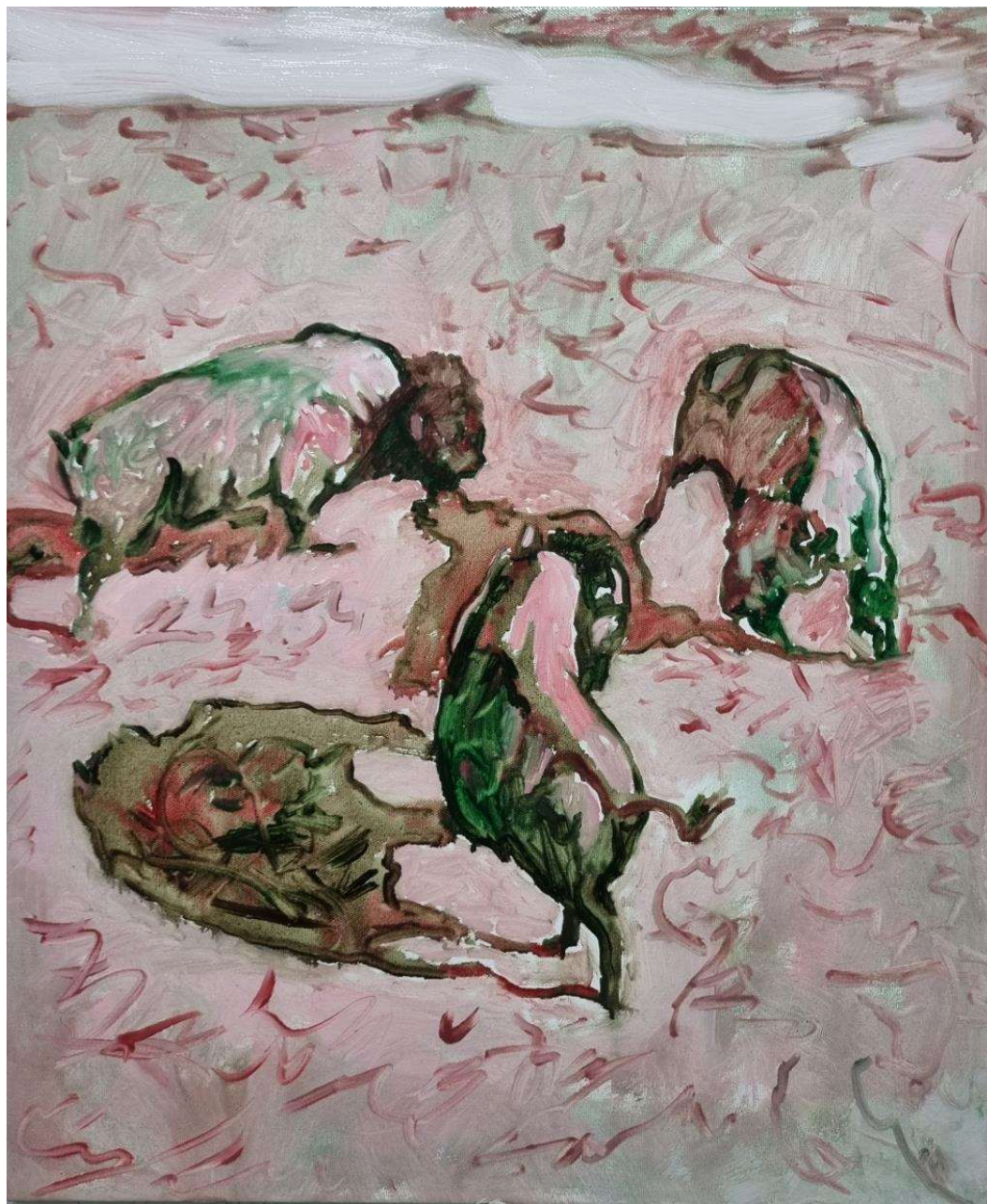
Surround oneself with light, oil on canvas, 60×72cm, 2023

풀이 안겼어, oil on canvas, 53×45cm, 2023

뒹 같은 꿈, oil on canvas, 21×33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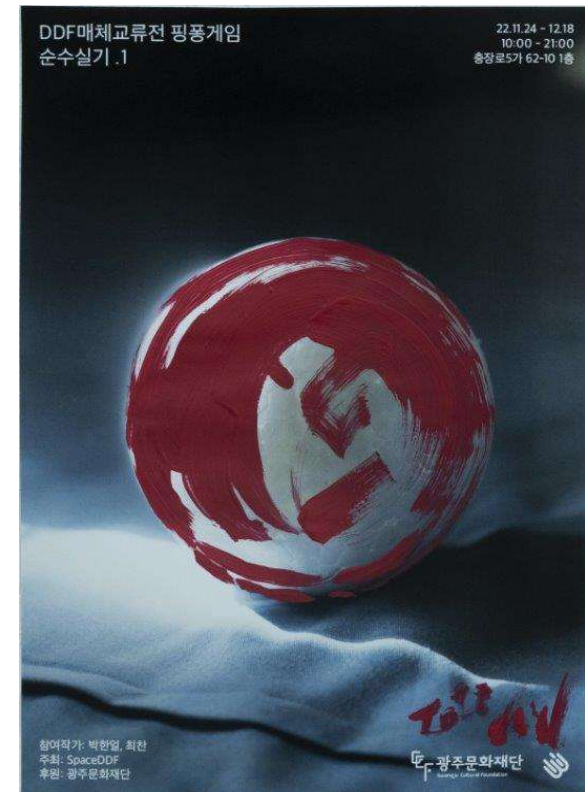
A pink foreground, oil on canvas, 90×116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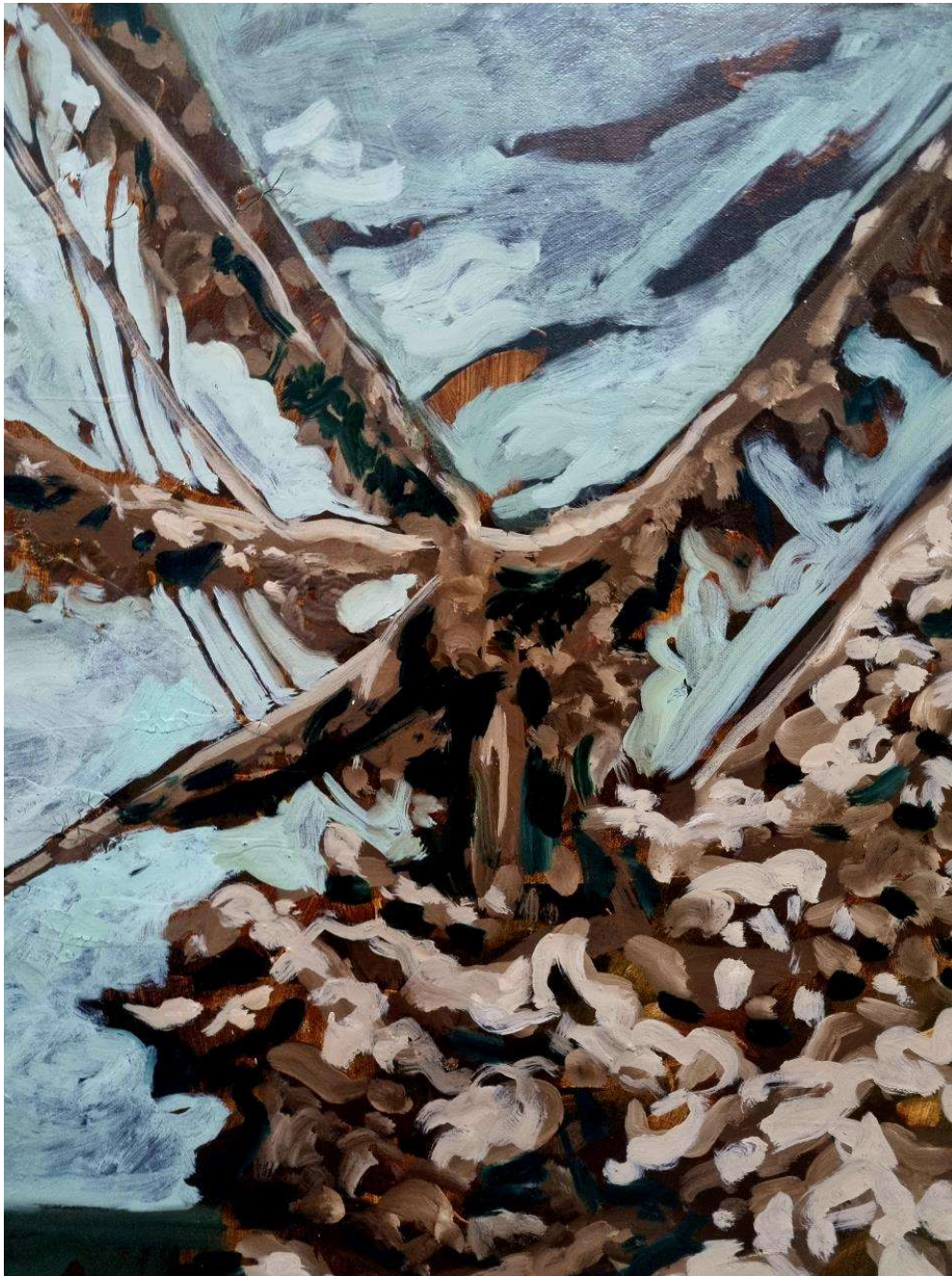


삼중추돌 (Triple collision) , oil on canvas, 74cm x 63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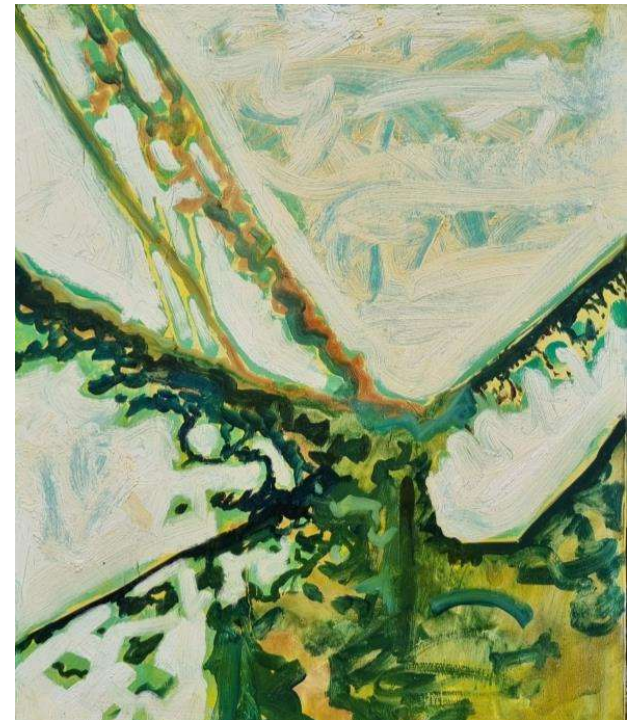


Drawings, mixed media on cloth, 29cm x 21cm (60work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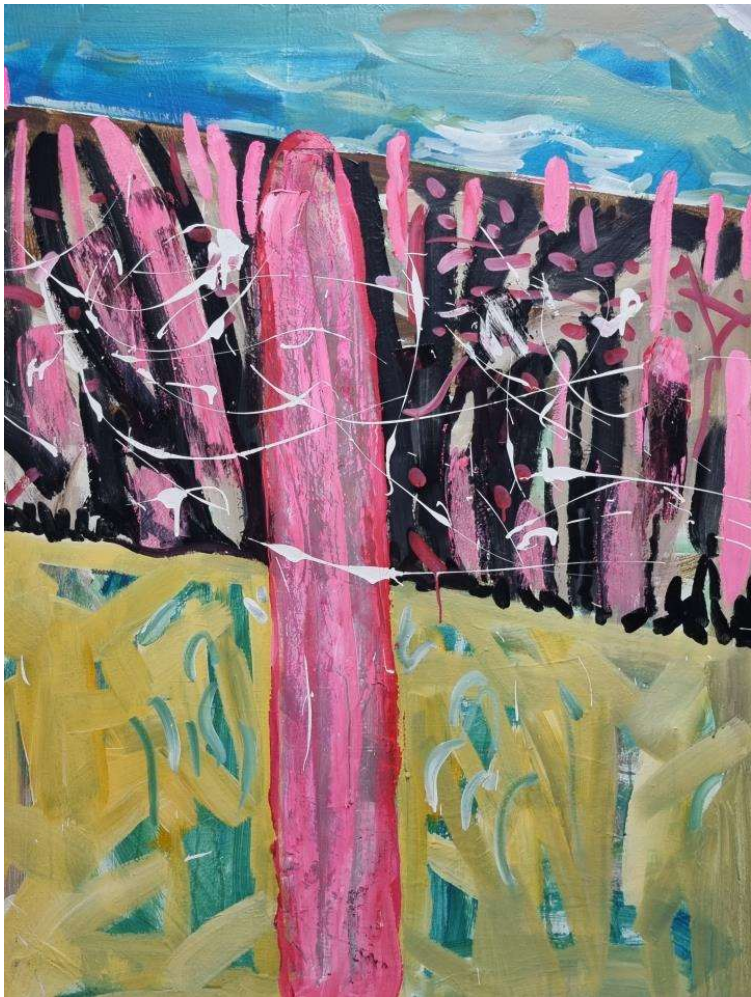




눈내리는날 , oil on canvas , 72cm x 60cm , 2023



눈내리는날2, 65cm x 53cm, oil on canva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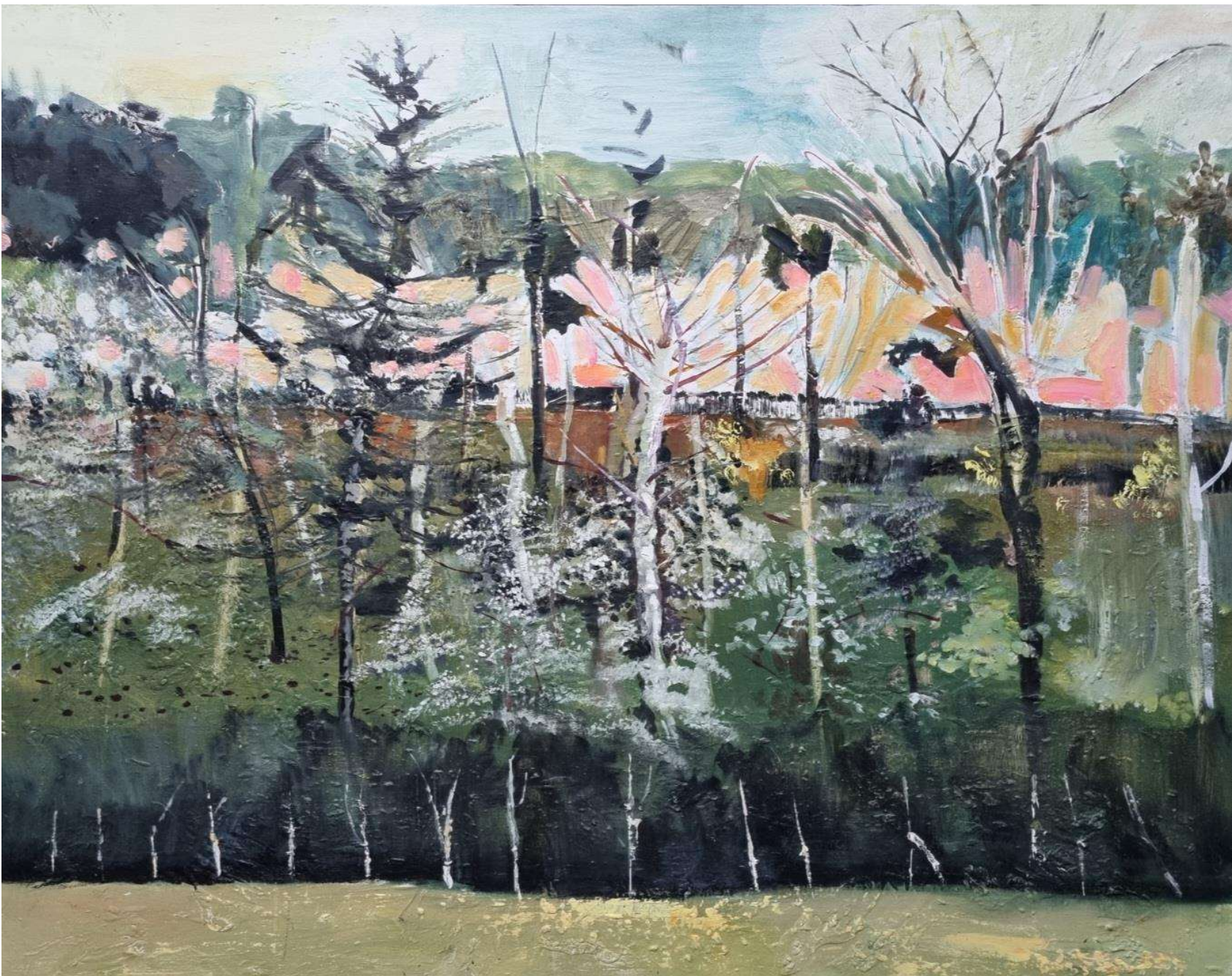


Escape(도피처), 116cm x 91cm, oil on canvas, 2022

Escape(도피처), 130cm x 162cm, oil on canvas, 2022

Escape(도피처), 112cm x 192cm, oil on canvas, 2022





산책, 91cm x 116cm, oil on canvas,
2020



최찬 (Choi chan)
시각예술가/회화

E
chlcks1748@naver.com
I art_chani

'감정에 대한 모순을 두고서 관찰하고, 위안의 존재를 이미지화 하는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체전

2025

'불완전한 완성 展' | 광주 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 광주
'조대의 미술 내일을 그리다 展' |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 광주 '젊은 모색
2025 빛나는 시작 展' | 나주 작은 미술관, 나주

2023

'광주 청년미술제 展' |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

2022

'순수실기1 展' | ' Space DDF, 광주

2021

'나선(spiral) 展' | 조선대학교 미술관, 광주
'불을 지피다 Art Group 타래 단체 展'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미술관, 광주
'채찍질(Whiplash) 회화학부 연합 展'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미술관, 광주
'페르소나 展' | 뽕뽕브릿지, 광주
'New vibe 展' | 갤러리 산, 서울

2020

'다시점 ArtGroup타래 단체 展'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미술관, 광주
'뽕.뽕뽕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전시 展' | 유스퀘어 문화관

레지던시

2025 청년예술센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개인전

2024 '삼중추돌 展' |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2023 '이중사고 展' | 민아트갤러리, 광주
2022 '생존도구 展' |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수상경력

2023 전국 바다사생대회 우수상, 여수미술협회, 여수

2022 조대미술상, 조선대학교, 광주

2021 무등미술대전 입선, 광주전남발전협의회, 광주

2020 순천미술대전 입선,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 순천

2017 전국 바다사생대회 우수상, 여수미술협회, 여수

2016 전국 바다사생대회 우수상, 여수미술협회, 여수